

地上天國의 世界化 未來化

崔永泰*

目次

I. 序言	1. 中國의 開關化
II. 典經속에 담긴 세계화 未來化 意志	2. 日本의 開關化
1. 世界化 意志	3. 美國의 開關化
2. 未來化 意志	4. 中東의 開關化
III. 空間의 地上天國	5. 韓國의 開關化
1. 地上天國建設	6. 未來開關化
2. 地下天國建設	7. 開關을 위한 上帝觀
3. 宇宙天國建設	8. 開關을 위한 宇宙觀
IV. 精神開關의 世界化	9. 開關을 위한 人間觀
	V. 結論

I. 序言

甌山の 上帝意識은 自己만의 것이 아니고, 道通한 모든 사람에게 이를 수 있는 境地에 이르름의 知覺狀態이다.

上帝는 人間本來의 神聖을 자각한 상태이며, 道通은 人間本來의 良心을 회복한 상태를 뜻하고 있다. 고로 道通眞境은 地上神仙과 地上天國을 체험하게 되는 경지를 뜻하고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이도삼에게 글 석자를 부르게 하시니 그가 天·地·人 석자를 불렀다.

天上 地下 人中에 無知天 無知地 無知人이니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天

* 前 東國大 教授, 理學博士

上無知天 地下無知地 人中無知人 何處歸〉(典經:47) 라고 하여 天地人 宇宙의 道通 神明 境地에 이르렀음의 지각을 上帝의식으로 신성自覺하여 地上神仙과 地上天國을 서둘러야 할 當爲促求를 한바 있다.

地上天國은 정신과 물질 陰과 陽이 調和되어야 理想社會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粒子 物質의 空間인 〈江〉에 神明的 波動 卽 마음이 같이 비비이며 神明的 氣가 長周入隅 공간에 크게 순회한다 하여 〈明月千江心共照 長周入隅 氣同驅〉(典經:46)라 하였다.

故로 粒子性 物質性을 가진 宇宙空間과 神明性 波動性이 合一 大巡하여야 仙境度가 빠르게 되어 地上天國을 서둘러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地上 地下 및 宇宙의 天國 건설을 內容으로 하는 空間의 天國 建設과 世界를 總括하여 中國 日本 美國 中東 및 韓國의 精神思想開闢 未來 德布 人間改造 및 天道의 開闢化를 통한 地上天國 건설의 世界化 未來化 方案을 다음과 같이 摸索하고자 한다.

II. 典經 속에 담긴 世界化 未來化 意志

1. 世界化 意志

〈天國〉은 神 天使 등이 있으며 청정한 곳으로 전해지는 假想的인 하늘 위의 나라로 규정하기도 한다. 樂園 卽 反地獄으로 설정하는 辭典的 해석도 있다. 그러나 非生産的인 樂園 매일 놀고 먹고 하는 동산 공간이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生産的인 마음과 神明 波動의 安息處이어야 한다.

개벽 〈Creation〉은 辭典的 풀이에서 〈天地가 처음으로 생김〉 〈天地가 뒤집혀짐〉 〈중의 집에서 儀式을 시작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生産需要創出을 위한 側面的 정신개벽〉은 인간의 波動性 實在性 神明性이 粒子性 物質性 現象性을 업고 나아가는 <生産的 개벽>이어야 한다.

<清淨하다><더럽다>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相對的인 判斷基準에 따라 나누어 지는 것이다. 이것은 <줄레이>의 윤리기준인 再生産 需要增大의 잣대

에 따라야 한다. 우주의 구석 구석이 모두다 淸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下水나 병원배설물에도 實在的 天國은 있다. 下水는 1차분해되면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산화질수 질화수소 메탄등으로 분해된다. 이들은 有用化合物로 再生産되어 인간생활에 有益한 생활자원으로 到來된다. 병원배설물도 1차분해하면 단백질<세균의 유해성 페프토그리칸>등으로 분해된다. 이 물질들은 再生産되어 人類에게 유익하고 값비싼 아미노산 및 효소성분源으로 되어 淸淨 再活用된다. 고로 차원을 달리하면 이 우주의 모든 존재 사물은 모두 半의 실재성 波動性 神明性和 半의 現象性 粒子性 物質性으로 <再配列 存在>케 된다. 고로 <淸淨하다><더럽다>의 판단기준은 현시성 저차원성 존재본질성을 忘却한 인간의 상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구분된 개념이다.

<전경 公事 3章>에서는 상제께서 胞胎運은 世界를 도와 나가 <胎連胎運 養世界>한다 하였다. 세계의 布德은 寅時에 하므로서 腹中 八十歲의 神明을 得할 수 있다고 하고 <德布於世 人起於寅 腹中 八十年 神明>(전경 148)이라 하였다.

하늘과 땅이 세계화의 기운을 맞이하여 七星을 돌아 서로 깨우쳐 陽明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天回地轉步七星 禹步相催登陽明>(전경150)한다 하였다.

천지신명이 塚墓 墓址에서 운기를 맞으며 靈臺가 四海에 널리 이르러 億兆蒼生의 道人을 얻어 仙境되어 得神明하여 <塚墓 天地神 墓址 天地神運靈臺四海泊 得體得化得明>(전경151)으로 世界化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전경>은 진리를 결합하는 본보기이며 대순진리회(宗團)의 正典으로 되어있다. 전경은 成冊된 것이 아니고 강성상제께서 화천하신후 그 제자들이 상제의 在世時에 직접 듣고 본 言行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말을 성문화 한 것이다.

행록 1-5에서는 儒佛仙 陰陽서적의 통독 유교경전의 지식 동학도의 추종 道教七星經 佛法 仙術 진묵의 일화, 김형렬의 울곡에 대한 담화, 유서구 지사의 보좌 등 강성상제의 탄생에서 세상을 떠날때까지 새종교의 行歷을 기록한 것이며 生동안의 카리스마性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사1-3은 中國古事, 氣通鑑 漢方醫書 유불선, 역, 經學, 玄武經의 혼합사상 呪文 呪符 등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강성상제의 상제로서

의 말씀만으로 典經이 조성되어있지는 않는 점도 있다.

<人類가 찾은 窮極>이 바로 <永遠>인 것이다. 영원은 잠시이고 흘러가는 地上의 존재에 대해서 초월적이면서 존재의 근거가 되고 있다.

地上의 인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끊어질 시간 속의 生活人이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이며 파멸에 직면할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멸은 면하는 피난길을 찾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상에서의 대순의 피난길이 전경 속에 담겨진 세계화의 길인 것이다.

강성상제께서는 <天下事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 하노라>고 하셔서 來世가 現世를 반영한 곳이며 來世는 죽음을 통해서 갈수 있는 四次元의 세계 즉 一次로 數千萬을 가야하는 차원의 세계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전경 속에 담겨진 실재의 세계이며 신명의 세계, 波動의 세계, 영원히 가야할 미래화의 길이며 그 바탕인 것이다.

人類十大課題中 어려운 몇 개 과제가 있다. 其中 주요한 네가지만 지적하면 (1) 빈곤문제 (2) 전쟁문제 (3) 비인간화문제 (4) 무종교화 문제이다.

其中 (1)번의 빈곤문제는 경제상생으로 (2)번의 전쟁문제는 정치상생으로 (3)번의 비인간화문제는 大巡의 人尊思想 俱現으로 다소 잠재울수 있다.

現世 地上의 교회에서는 慣性的 예배노인이 늘어 나고 있어 사회전체가 無道德化되고 있다.

(4)의 무종교화문제는 강성상제의 <天地人 道通 眞境 世界化 未來化의 道>로서 宗教次元을 超克한 無宗教化문제의 가닥을 풀어 나갈수 있는 것이다.

2. 未來化意志

상제님의 말씀이 된다는 데에서 冊과는 다른 <典經>이 <聖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典經의 예시에서는 미래세계에 대한 기대의 기록을 담고 있다.

<三界公事>는 곧 天地人의 삼계를 개혁함인 것이다. 이 개혁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 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닌 다만 상제에 의해 미래에 지어져야 되는 일이라 하였다.

상제께서는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샷틈없이 <도수>를 짜 미래를 개혁해 나간다고 하였다.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마음을 게을리 하지 말라>하셨고 너희들은 손에 生字를 쥐고 다니니 得意之秋라 하였다. 게을리 하지 말고 <勸君凡事 莫怨天>으로 상제를 탓하지 말며 앞으로 차근차근히 <三遷 度數>하여야 <미래에 期必 天地人 宇宙의 大公事>가 이루어 진다 하였다.

Ⅲ. 空間의 地上天國

1. 地上天國 建設

(1) 神明의 主處論

宇宙를 天地人 三界로 분류하면 神明들이 삼계전체를 유행할 수 있다. 神을 天上神 中天神 황천신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이 구분은 인간이 구분한 신의 구분이지 天上 中天 地 황천 天地人등으로 공간구분을 하고는 있다.

<天>은 九天大宇宙를 포용한 것이며 <地>는 太陽界 惑성을 포용해야 할 것이고 <人>은 동식물 미생물등을 포용해야 합리성 存在本質性이 수긍된다 할 것이다.

通常으로 天界의 神明은 天神 宇宙神 天上神 上界神을 위시하여 신의 대다수가 天界를 주거처로 정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것은 일부 인간이 지니는 좁은 생각의 추리뿐이라고 볼 수 있다. 大巡思想 論叢 제14집 (pp.429-449)에서는 모든 신은 九天大宇宙 存在의 半인 粒子영역과 其半인 波動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定位하고 있다.

<神의 大多數가 天界를 주거처로 定해져 있다>고 하는 사고에는 보다 합리성 존재본질성에 입각한 인식의 補遺가 있어야 한다.

모든 신은 그 전부가 천지인을 중심한 全宇宙의 全大氣層 및 공간 全惑星 全恒星 구성의 全粒子에 共存하는 波動的 實在 神明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2) 地人界의 神明論

地界를 區別하여 여러 신명의 主處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其 神의 性格으로 보아 地界의 神 地神 지하신 황천신 지방신 하계신 등이 지계에 속하는 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文明神 사신 압사신 천하자기신 천하시비신 척신 아표신 같은 神明은 하늘에 있을 수 없는 성격의 神이니까 人界에서 작용하는 神明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神明들이 人間의 상상과 推理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이 死後에 神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地人界의 神明으로 나누기도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인간 및 모든 생명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生命體의 실제성 및 파동성이 神明性을 가지게 되므로 인간 및 모든 생명체가 가진 생전의 신명과 사후의 신명은 其 存在本質上 生命體의 粒子性 物質性 과의 合一 分離上의 문제이지 其 神明 本質의 存在 主處공간과는 별개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모든 생명체의 神明이 死後의 主處地가 離合集散되어 天上 中天 地上 地中 地下 등으로 <헤쳐모여>하는 <住處 패턴 계열>이 生成되는 일은 神明이 사진필름에 현상되어 나오는 27차원 세계가 밝혀져야 뚜렷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경, 공사3장>에서는 상제께서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꾸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하며>(전경, 권지1장)에는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부터 일체의 아표신을 천상으로 몰아 올렸으니 이후에는 백성이 기근으로 죽는 일은 없으리라 한바 있다.

이런 몇 사실로서도 神明들이 맡아있는 존재론적 임무가 각각 있음이 짐작된다.

2. 지하천국건설

인류는 地氣가 統一되지 못하여 각기 思想이 엇갈려 反目 투쟁하게 되며 이를 없애므로 萬古의 神明을 調和롭게 하여 天國建設을 이룩하게 되고 地下仙境도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死後영혼 및 신명의 원한이 地下에 차 있으면 아무리 人間끼리 和解하더라도 地下의 평화가 오지 않으며 地下天國建設은 불가능한 것이다.

大巡에는 일정한 度數가 있다. 이 <도수>에 의해 이 우주가 대순환한다. 공간적으로는 우주의 전체에 미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거쳐

대순환한다. 其中 地下天國이 이루지 못하여 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度數가 어긋나서 대순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어긋난 것을 바로 잡는 天地公事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증산은 땅이나 인간을 떠나 神明이 부분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心理속에 있음을 確信>하였다.

증산은 땅이나 인간의 神明을 긍정하고 諸神의 平和共存이 땅이나 인간의 平和共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아버지와 祖上을 찾는 일이 原始返本이다. 宇宙化는 遠心性을 가지나 原始化는 求心性을 가진다.

흙을 母胎로 한 原始返本化는 地下天國建設의 仙境化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地球의 정신계와 물질계가 공존하고 만족해야 地下天國건설이 가능하며 地下의 調和仙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만 극락이나 천당에 갈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仙境이나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죽어간 사람이나 영혼까지도 평화롭게 하므로서 地下天國건설의 礎石이 다져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바로 地上天國건설과 우주건설의 土臺가 되어 空間의 天國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 宇宙天國建設

(1) 宇宙政府思想

<人間이 사는 지구와 物質과 神明이 共存하는 宇宙가 모두 평화스러워야 한다>는 思想이다.

人類는 우주평화달성의 길을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物質的 制度的 改善뿐 아닌 精神的 神明的 改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地球上 권력기구의 통제뿐만 아니라 宇宙神明들의 平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宇宙 地球 人間은 각각 實在即 神明이 半分 존재하며 現象即 物質이 半分 되어 共存하고 있다. 이 兩者가 合一되어진 하나 <一>, <全>, <完>의

存在 卽 一體의 存在로 이룩되어야 宇宙天國建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주의 窮極點(Terminal Sein)은 太極이며 이것은 陰과 陽으로 形而上學的 存在와 形而下學的 存在가 合一되어 宇宙天國建設의 始源이 되고 있다.

(2) 人尊思想

상제께서는 宇宙天國건설에서 天尊 地尊 人尊 中 人尊이 重要한 시대에 직면하고 있음을 定位하였다.

<先天에는 謀事在人하고 成事在天하였으나 후천에서는 謀事在天하고 成事在人>하게 되는 眞理로 정의하였다.

宇宙天國 建設을 위해서는 東洋의 多神的 汎神的 佛教圈域에는 特別한 갈등이 없으나 西洋의 唯一神을 인정하고 있는 기독교 및 이슬람교 圈域에서는 他神을 <악마>나 <사탄>이라 하여 多小의 갈등이 介在되고 있다.

<大巡은 統一神壇 調和仙境 地上神仙 地上天國思想을 世界와 宇宙 現今과 未來속에 提示하고 있다.> 君臨神 支配神이 아닌 天地萬物에 奉仕하겠다는 奉仕神 民主神 存在神 眞境으로서의 상제의식으로 宇宙天國建設을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3) 眞境思想

眞境은 모든 文明이 共存하며 모든 宗教가 共存한다는 思想이다. 道通한 사람은 神仙이라는 思想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人間으로 있으면서 道通한 境地에 이르면 神明이 될 수 있다.>는 思想을 가진 境地에 이르름을 뜻하기도 한다. 진경은 言德을 삼가고 늘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않은 神人調和의 思想이다.

物質과 波動을 가진 인간과 신명이 같고 現世와 來世가 같다는 思想이다. 진경은 解冤相生되어 神明과 物質이 調和되고 陰陽이 合德의 境地에 이르러 된다는 사상이다.

正<正立> 生<生成> 合<合德>으로 되는 相生思想으로 宇宙天國建設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吉福을 주는 本源은 인간의 마음이지 神明이 아니며 부처님도 아

니며 성결도 아닌 것이다. 인간이 이 마음과 이思想으로 開闢하면 天地人 三界一體를 이룰 수 있으며 人種차별, 宗教차별, 빈부차이, 地域차별, 男女차별, 세대차별을 없앨 수 있다. 이 太極力을 宇宙의 窮極點 中核으로 하여 宇宙天國建設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IV. 精神開闢의 世界化

1. 中國의 開闢化

(1) 中國思想의 要約

中國은 장구한 道德 宗教 政治中心의 固有思想體系를 유지해 왔으며 한국 및 주변국가의 思想形成에 영향하여 왔다. 道德과 政治中心으로 現實世界가 眞實世界임을 눈으로 보고 손에 만져보고 터득하여 확실하고 진실하며, 개인생활의 편안을 도모함을 위주한 <立處卽直思想> (修己治人之道)를 基礎哲理로 하여 자리 매김해왔다.

陰陽五行을 중심한 宇宙論的 思想, 禮儀를 존중하는 儒敎思想, 원칙의 바탕에다 현실을 중시하는 中庸思想, 人生論的 조화의 哲學思想 類型을 其母胎로 하고 있다.

<天>의 사상 즉 <自然>은 <命令者·統率者>이며 宇宙와 人生을 관찰하는 思想的인 秩序原理라고 규정한 <天人中心思想>으로 요약되는 文化 宗教 統治의 中心思想으로 定着시켜 왔다.

(2) 中國思想의 歷史

周王祖의 思想

自然神과 祖上神을 뒤희며 최고의 인격신으로 帝神을 崇拜하며 이는 <天>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天>은 宗教的 超越的 의미를 가지며 <德者>의 뜻을 가지고 <天命>에 의한 것은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王者의 德>에서 구현된다고 하였다.

孔子는 <天>을 존중하여 유교를 체계화 시켰으며 血緣의 연대의식에서 道

德질서에 의해 백성과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其後 <兼愛交利思想>을 토대로 한 <墨翟思想>이 仁義之德을 바탕으로 王道政治論을 펴낸 孟子思想과 자연속에 있는 인간을 보려고 한 道家思想을 제창한 <老·莊子思想> 및 禮思想을 다진 <荀子思想> <法家思想>을 기초한 <韓非思想>이 思想脈統을 이어왔다.

漢帝國의 思想

前漢에는 동증서가 儒敎와 陰陽思想을 기초하여 <天人合一思想>을 도출하였다. 그는 인간계 사건과 자연계 變異가 宇宙論的 相關性이 있다고 하여 天意나 天命王權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유교와 천명주권사상을 바탕으로 國敎를 創建하였다.

後漢때는 天命代身體 <氣>가 생성되어 <物理自然이 운행되고 종교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老莊思想>을 번성케 하였으며 이 노장사상은 佛敎와 乘合하여 <般若空思想>을 정립하게 되었다.

其後 유교는 정치적으로 作用되었으나 사상적으로는 번성하지 못했다.

思辨的 彼岸的인 印度佛敎는 접근이 어렵게 되었다. 실천을 중시하는 중국의 불교는 天台 華嚴 禪宗으로 정립되어 간이직절<簡易直截>思想을 정착시켰다.

宋 唐代의 思想

불교원리보다 人生哲理究明實踐을 위주한 유교가 우위로 정착되어 理學中心의 송학이 성립되었다.

북송의 <周濂溪 程明道>가 定說한 理의 철학, 氣의 철학, 화엄의 철리로 형이상학적 人生哲理思想이 집성되어 朱子學으로 대성하게 되었다.

이 사상은 우주근본이 <太極>이며 이 太極은 理와 氣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존재(Sein)가 <현상>화하기 위해서는 <氣>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哲理는 이어 인간이 수양을 통하여 인욕을 누르고 天理에 따르고 그를 발휘해야 하며 내적심성을 다듬어 內省을 가지며 외적사물을 탐구하여야 한다는 <居敬窮理思想>을 체계화 하게 되었다.

송대의 이상체계는 북송의 歐陽修의 실증주의와 남송의 永嘉學派인 實利的 공리주의를 중심한 思想을 받아들여 <存在의 근원문제와 심성의 본질을 구명하는 哲理>로 귀일시켰다.

왕양명은 <心>이 바로 <理>라고 하였다. <心>을 먼저 認知하므로서 <理>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知>는 체험의 <行>을 통해 확실해 진다고 하는 <知行合一思想>을 집성하였다.

近世以後의 思想

<春秋公羊傳>에 따르면 아편전쟁이후의 중국사상은 康有爲를 중심한 公羊學派의 개혁사상을 중심하여 체계화 되었다. 중국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中體>와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복리를 추구하는 사상인 <西用論>에다 민족주의 사상이 깔린 <中體西用論>이 채택되었다. 이 사상은 <滅滿興漢思想>으로 태동되기도 하였다. 孫文의 辛亥革命思想, 民族·民權·民生을 위한 <三民主義思想>으로 정착되었다가 다시 中國傳統思想으로 즉 <天人思想 宇宙 中庸 立處卽直><修己治人道思想>으로 재환원 정착되었다.

(3) 中國開闢을 위한 大巡思想의 對處

中國傳統의 <天人思想>에서 <上帝思想>의 天地人中心思想으로 價值기준의 漸進 變革이 要求된다.

陰陽五行中心의 宇宙論과 禮 尊重의 儒敎思想原則에다. 現實을 重視하는 中庸을 中心한 人生論的 調和의 哲學을 토대하여 上帝哲學思想의 方向으로 점진적 접근이 있어야 함

中國 최고의 人格神인 帝神을 大巡의 上帝 (Cosmetic Supreme Beeing) 思想으로 昇化 歸一 崇拜하도록 점진 이해 접근함이 정착화 되어야 한다.

2. 日本의 開闢化

(1) 日本思想의 要約

1979년 기준 일본의 각 宗教別 신도수의 합계는 17,604만명으로 전체인구

의 151%로 집계되었다.

일본인은 宗教에 대한 관심이 그리 투철하지 않고 宗教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편의적이고 안이하다는 것이다. 종교별 신도 비율은 불교가 47.4% 神道(자연숭배 조상숭배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고유종교 神社神道)가 45.4%→신구교가 교합된 그리스도교가 0.5% 기타종교가 6.7%였다.

유학이 전래된 것은 4세기말 백제의 王仁(와니)에서였다.

漢子를 사용한 일본 최초의 문헌은 8세기초 古事記 <日本書紀>였다. 신화 전설을 담은 사서가 있었다.

8세기 후반의 <萬葉集>은 上代の 와카<和歌>, 5.7.5.7.7. 음률로된 日本詩歌의 집성이었다.

宮中 귀족사회의 生活, 人物의 감정을 묘사한 겐지모노가다리<源氏物語> 軍記文學의 헤이케모노가다리<平家物語>가 있다.

江戸時代는 조오닝(町人)에 의한 평민문학이 등단했다. 에도<江戸>시대의 문학특색은 風雅·幽玄소설, 勸善懲惡, 忠孝정신, 色巷 色情의 세계를 그린 문학이 등단했다.

1968년엔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등 자기형성을 완성한 文學哲學이 대두됐다.

(2) 日本思想의 歷史

古代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이 지배하는 국가가 성립되었음.

이어 4세기에서 12세기까지 律令制度에 의한 國家體制가 유지되었다. 4세기 말엽에 백제에서 불교가 전래되었다. 이때 불교를 政治基調로 삼은 쇼오도구태자<聖德太子>에 의해 각지에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AD 645년에 氏姓社會를 타파하고 中央集權的인 <律令國家>건립을 위한 <大和改新>이 시행되었다.

덴무천황<天武天皇>의 지도력으로 천황중심의 中央集權的<律令制度>가 확립 되었으며 <公地公民制>가 채택되었다.

나라시대<奈良時代>에는 도오다이절<東大寺>의 大佛등 巨刹을 조성 하여

불교문화가 꽃피웠다.

源武家が 가마구라<鎌倉>에 幕府를 세웠다. 京都 천도후 鎌倉幕府가 생기기 까지를 <平安時代>라 한다

이때에는 僧侶 사이초<最澄>에 의한 天台宗 구이카이<空誨>에 의한 眞言宗이 생겨 났으며 貴族사이에 國風文化가 생겨 났다.

中世

1192년 미나모토 요리토모(源束負朝)는 鎌倉에 막부를 세우고 地方行政 단위의 각국에 군사 및 모반 진압을 맡은 관리인 슈고<守護> 토지관리 연금 징수를 맡은 관리인 지토<地頭>를 두어 武家政權을 수립하였다.

일본 고유의 종교인 神道는 일본의 벼농사를 시작한 시대부터 胎動되었다. 佛敎와 習合되어 일본의 天皇主義, 日本中心主義 明治時代의 神道로 復古神道論을 거쳐 일본의 宗教文化思想으로 정착되어 왔다. 法然(AD 1133-1212)은 本願 念佛을 해왔으며 <자신이 무력함을 自覺하고 本願에 의해 濟度하고 成佛해야한다는 念佛>을 하는 <宗教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武士領主的 支配體制와 貴族社寺<神社와 寺刹>의 莊園領主 體制를 기초한 二元體制가 유지되었다.

幕府의 實權은 쇼군<將軍> 즉, 幕府의 세습적인 국가 통치권자 밑에 幕政을 통치하는 싯켄<執權>의 직을 가진 北條 一族이 통치하였다.

가마쿠라시대에는 淨土宗을 중심한 新興宗派가 생겨났으며 문화는 귀족에서 무사로 지역적으로는 京都에서 각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이때 귀족화한 무사 계급에 의해 기타야마문화<北山文化> 히가시야마문화<東山文化>가 생겨 났으며 京都商工業者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도<茶道> 꽃꽂이의 가도<華道> 노오가쿠<能樂> 水墨畫文化가 생겨 났다.

近世

1590년 통일을 완수한 도요도미히데요시<豊臣秀吉>는 봉건적 토지 소유제를 확립했으며 토지측량 및 농민소유의 刀劍沒收를 위한 <檢地制>를 단행했다. 1603년 <德川家康>의 모모야마문화 <桃山文化> 시대에는 鳥銃文物

및 그리스도교가 일부 들어 왔다가 其後 그리스도교를 엄금하고 鎖國을 단행한 사실이 있었다.

近代

天皇을 神格化하여 神道에 國教的인 성격을 부여하여 정부는 <프로이센헌법>을 본뜬 <明治憲法>을 제정하였다. 1896년 요고이토기오<橫井時雄>는 日本比較宗敎學會를 창립했다. 그는 심리학사회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고고학을 모태로 하여 학회를 창립했으며 종교를 <공개성을 가진 신을 대상으로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체계화된 노력>이라 하였다.

太平洋戰爭 당시의 日本佛敎는 護國佛敎였으며 印度 中國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온 불교가 일본에서 精華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淨土宗系, 禪宗系, 法華系가 중심된 불교였다.

동남아 국가의 불교를 小乘불교라 했으며 <死者를 부처>라 했다.

즉 死者佛 死者禮儀體系佛敎였다.

<죽는 것은 成佛하는 것>이며 <祖上祭祀는 奉佛한다>고 하는 宗敎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중대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大陸침략을 목표로 軍國主義 國粹主義로 전환하여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突入하여 1945. 8. 15.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때까지 戰爭文化時代를 지냈다.

現代

연합군이 일본의 비무장화 민주화를 했고 농지개혁 재벌해체 전범자처벌 공직 추방을 실시했다.

국민 主權下의 남녀평등 등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新憲法文化時代가 전개됐다.

二次大戰 후의 일본 불교사상은 法華經중심 불교였으며 開祖中心의 불교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成長佛敎思想을 가지고 있었으며 創價學會 靈友會 立正佼成會思想으로 진전되어 나갔다.

<相對方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는 慈悲의 行爲>를 布敎라 하여 이를 折伏

이라 하기도 하고 이를 政治結社하기도 한 創價學會는 1960년 기준 15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1925년 카리스마적 영능자로 알려진 小谷喜美와 같이 又保角太郎이 法華經을 중심으로 <過去의 靈> <現在의 靈> <未來의 靈>은 연결된다고 하는 靈界觀을 가지고 夫婦兩側의 先祖를 되시며 經을 외어 선조를 공양하는 <靈友會>의 宗教思想이 일부 정착되고 있었다.

1937년 <庭野日敬>이 중심되어 올바른 가르침을 세상에 세워 인격을 완성하여 진실한 선조공양을 正行하므로서 成佛이 가능하며 20명씩 法座를 만들어 회원간의 고민을 상담으로 해결해 가는 佛敎思想體系를 立正佼成會로 하여 創會하였다.

祖上 천도로 성불과 행복을 구하는 최고경인 <阿舍經>에 근거한 아함종이 불교사상으로 재정착 되었으며 在家佛敎로서 <涅槃經>을 기본교전으로 하고 眞如苑思想을 중심한 불교단체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其後 本寺보다 末寺 활동을 중시하는 <同朋會> 가 태동되기도 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현대 일본의 종교사상은 손잡기 운동을 중심한 <淨土宗思想> 불교의 護法운동을 모태로 하는 <日蓮宗思想>과 人間社會의 어두운 구석을 골고루 비쳐 주고 공명을 주는 <天台宗思想>의 三大宗敎思想類型으로 대별된다.

(3) 日本開闢을 위한 大巡思想의 對處方案

일본고유 종교사상의 핵은 불교와 공존 습합된 神道이므로 <죽음이 만능의 成佛 및 부처됨>이 아니고 大巡의 上帝思想 실현으로 <살아서 成佛이 가능하고 地上神仙 地上天國 經濟大國 宇宙平和를 건설할수 있다는 神明觀>에의 접근 및 <奉佛價値의 哲學的思考에 뿌리를 둔 점진적 變革>이 요구되고 있음.

大巡의 上帝思想 구현으로 <經을 외어 先祖에게 供養하여>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過去의 靈, 現在의 靈, 未來의 靈을 연결시키며>최대의 행복을 주는 자비행위 以上차원의 가치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宗教哲學的思考의 점진적 改革이 요구되고 있다.

3. 美國의 開闢化

(1) 美國思想의 要約

美國哲學은 미국고유의 <프래그마티즘>과 유럽제국으로 부터 온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미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남북전쟁시까지의 지적으로 유럽의 식민지였다.

英國 본국에서의 종교적 압박을 받은 최초의 영국이민들의 <푸리티니즘>은 본국에서 보였던 경건주의적 경향과 플라톤주의를 混有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경험론>도 가지고 있었다.

其後 에드워드에 의한 대각성<Great Awakening>의 개혁운동사상이 사상적으로 정착되었다.

1차적으로는 英國 <존록>등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유니테리아니즘>과 불란서의 啓蒙思想 독일의 관념론 낭만주의 사상도 영향하였다.

反俗主義에다 人間性回復을 위한 초월주의 사상이 哲學的으로 기초형성이 되어왔다.

현대에 와서는 미국 각주의 많은 대학이 劃一化에 반하여 思想의 多樣性을 내고 있으며 民族의 多樣性은 宗教思想의 면에서도 <카토리시즘> <프로테스탄트니즘> 이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영국사상과의 상호영향 및 독일 불란서의 實存主義思想도 미국철학사상의 원류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어왔다.

(2) 美國思想의 歷史

<프래그마티즘>의 성립

南北戰爭후 유럽에서 이룩된 산업혁명과 산업자본의 흐름, 鍍金시대의 도래, 자연철학의 발전, 進化論 생성 등의 생각과 사고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지침과 이상을 찾기 시작하여 <프래그마티즘>을 태동시켰다.

이 사상은 일면에서는 美國獨自의 철학이라는 주장과 실천적 정신을 구현하였고 다른면에서는 <푸리티니즘>의 세속화 종교적 관용, 과학적 자연관,

새교육의 가능성, 미국민주주의 및 능률주의 등에 영향을 주어 왔다.

이 <프로그마티즘>의 생각은

첫째: <概念>이 永遠不動의 존재가 아니라 <現象解明의 手段>으로서 단정되어 조작되는 도구로 간주하게 되었고 이것은 先驗主義에 대해 經驗主義的 생각을 갖게 하였다.

둘째: 實驗的 假說로서 현상의 해명에 활동되었을 때 이 과정의 성과에서 볼수 있는 유용성에 진리의 기준을 구하게 되었다.

셋째: 수많은 기본개념을 對立的, 靜的으로 보는 종래의 傳統的 사고법에 대해 <프로그마티즘>은 이들의 連續的 相關性과 <다이내믹>한 발전과정에서 터득하게 되었다.

넷째: 認識이나 實踐을 환경으로부터의 자극과 이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이라고 하는 우연적 상관적 발전과정에서 분석해보는 <行動主義>가 결부하게 된 것이 其 사고의 특징인 것이다.

<네오프로그마티즘>의 形成

미국철학의 주요한 흐름이 되었으며 유럽의 사상에도 영향을 준 사상은 <프로그마티즘>이었다.

그러나 이는 여러 비판이나 반대자도 나타나 사상의 수정과 이론의 재무장을 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현세기에 현저한 발전을 나타낸 기초논리학과 2차세계대전 전에 생긴 論理實證主義과의 비탄논리가 등장하므로 <네오프로그마티즘>이 새로운 엄밀성과 풍부한 소재를 가지고 <프로그마티즘> 재확인 재무장 사상으로 등단했다.

<루이스> <화이트> 등을 대표자로 한 인식행동에서의 기호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行動主義的 기호론을 바탕한 <네오프로그마티즘>이 재등장 되었다.

2차대전 후의 미국 社會黨은 <心理學主義>와 <實證調查主義>를 其 특징으로 하여 世界社會學의 主軸思想을 이루기도 하였다.

<쿠리>를 중심한 학파가 <一次集團의 人間性形成의 重要性>을 주장한바 있으며 <미드학파>가 중심된 社會的 自我論이 새로운 思想體系形成에 기여

한바 있다.

(3) 美國開闢을 위한 大巡思想 對處方案

<로마서講解>에서 <갈발트(1919)>는 프로테스탄트 神學의 改善方案으로 <성서를 절대시 한데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설립후의 宗教運動 방향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고 그리스도교 이외의 他宗教와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大巡眞理의 接近窓口에 틈새가 생겨나고 있음을 自證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神을 찾는 것이 아니라 神이 인간을 찾음을 알아낸 그리스도교단의 흐름은 人尊을 神尊 地尊 天尊의 위 개념으로 두고 있는 大巡思想과 理想的 公約点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超越的 主權者인 <그리스도유일신>의 神觀 및 東洋倫理를 초월하고 聖者 절대주의 宗教思想을 止揚함에 있어 天地開闢 地上神仙 宇宙平和思想을 점진적으로 接木 開闢化해 나가야한다. <에큐메니칼리즘>의 全現상 創造者主義思想을 가진 미국내 카톨릭 종교사상에 대한 大巡宇宙平和思想을 점진적으로 접근 開闢化해 나가야한다.

4. 中東의 開闢化

(1) 中東思想의 要約

中東의 中心思想을 이슬람의 神學 및 哲學思想으로 전제하여 설정하고 大巡思想 開闢化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슬람 신학의 발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와실 빈 아다>였다. <빈아다>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사상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神의 本質이외에 神의 屬性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信仰과 不信仰의 中間상태를 설정한다

人間의 宇宙意志를 인정한다.

政治的인 中立을 기본입장으로 한다는 것이다.

其後 <비슬린 아룸타밀라 주바이>등은 다음과 같은 사상의 줄거리를 가져고 있다.

神은 唯一한 存在이다.

코란은 神의 創造物로 神과 동일하지 않다.

神은 現世에서나 來世에서는 善과 義만을 행하므로 神은 正義이다.

善이든 惡이든 人間은 스스로의 行動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다만 其行爲에 대해서는 來世에 其應分の 報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 등을 神學思想의 要旨로 정리한바 있다.

이슬람교의 聖典인 <코란>은 <神의 啓示를 기록한 성스러운 文書>라는 뜻이며 그리하여 <알키타브 聖典>이라고 하였다. 이는 <읽는다><독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其내용이 <하늘에 있는 神의 영원한 말씀을 기록한 書版을 신이 마호메트에게 읽어주고 마호메트가 그것을 듣고 復唱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하고 있다.

이슬람 哲學은 8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형성된 고전적 이슬람 文明에 방법론적 기초기반이론을 주었으며 이슬람의 法學 神學 神秘主義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 온 것이다.

이슬람 哲學의 최초 인물은 순수 아랍인이었던 <말킨디: 796-873>였다.

그는 그리스 哲學에 관심을 가진 이슬람 사상계에서 최초의 哲學者였다. 그는 哲學의 定義를 <인간 능력의 한계에까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心理學>과 <플로티니스의 英知論>을 도입하여 이슬람 철학의 母胎를 형성하게 했다.

(2) 中東思想의 歷史

이란의 <자마르딘 알 아프가니:1839-1897>는 이슬람 세계의 대동단결과 서양 近代科學技術의 적극수용으로 汎이슬람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터기의 專制君主體制를 강화시키게 되었으며 이슬람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民族運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이슬람국가는 서양의 植民地支配體制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그것은 실제로 政治的인 독립일 뿐 세계속에서의 이슬람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은 아니었다. 이때 이슬람 세계는 教育, 行政, 社會 등 각 방면에서 낙후되고 있었으며 西歐諸國의 경제 착취기는 존속되고 있

었던 것이다.

其後 과거 이슬람 近代運動이 실패한 것은 모두 타협에 의한 절충 態度에 있었기 때문에 其 正反對立場인 비타협적이고도 철저한 이슬람 改革을 推進해야 한다는 <急進派 運動>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急進運動은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내셔널리즘>보다 철저한 방향으로 進展시켜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全體主義적인 이슬람운동을 추진하여 오게 된 것이다.

(3) 中東開闢을 위한 大巡思想의 對處方案

중동 세계를 이끌고 가는 이슬람 神學思想은 다음과 같은 思想面을 점진적으로 보유해나가야 大巡의 天地人 宇宙平和實現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신은 신의 本質이외에 신의 屬性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神觀을 점진 補正해야 한다. 신의 善神 惡神 地方神 機能神 등의 屬性을 감안한 범신(汎神)과 上帝의 인식 타당성 당위성 및 存立 科學哲學性을 神學 및 哲學思想的으로 접근시켜 나가야 한다.

信仰과 不信仰 中間상태의 설정 및 認定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合理性 哲學性을 전제한 大巡思想을 점진적으로 접목시켜 道通眞境에 근접하도록 道人擴充을 기해야 한다.

<코란>은 <神의 창조물로 신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思想에서 먼저 현재의 사상을 是認 肯定하고 다음 上帝 神明의 合理性 科學哲學思想을 점진 접근하여 精神開闢化 宇宙平和化하여야 한다.

<좋은든 悪い든 인간은 스스로의 行動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다만 其 行爲에 대해서는 來世에 其應分の 보답을 받게 된다.>는 現世罪免責思想을 自省케 하여야 한다.

現世의 地上神仙 天國建設 宇宙平和건설로 過去 現在 未來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解冤相生의 기초 天地人公事 哲理를 점진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

코란은 <하늘에 있는 神의 영원한 말씀을 기록한 書版>으로 정리하고 있다.

코란이 하늘에 있는 신의 말씀이 아닌 <天地人 宇宙全體에 恒存하는 神明, 上帝의 말씀을 기록한 書版>으로 점진적인 合理化 宗教哲學化 思想近接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 道德 새 宗教 思想을 추구하게 하고 합리적 科學哲學的인 當爲를 스스로 느껴 책임있는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함이 인류에게 부여하고 있는 地上의 모든 知性이 해나가야 할 과제임을 재인식 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도덕 종교적인 새 지식, 理解判斷에 의한 知見의 변화, 결과에 책임을 느끼는 마음의 바로잡음, 內的傾向性을 일으켜 나아가는 태도의 自省變革이 있어야 中東圈域 및 全世界의 上帝思想 深化·度數化가 가속화 되는 것이다.

5. 韓國의 開關化

(1) 韓國宗教思想教育의 現在

韓國佛教教育의 現在

한국불교가 전래되어 지배계층의 정신형성에 기여했으며 國泰民安을 비는 護國宗教水準에 不過한 장점은 있으나 평민생활과 깊은 관계가 없었으며 國民大衆의 영혼구원을 못하였고 社會革新운동의 참여에 기여하지 못한 면과 社會 啓導力의 缺如性을 短點으로 지적하고 있다.

高句麗期에는 불교가 들어와 지식인 사이에 <哲理의 對象>으로 존재해 왔으며 新羅·百濟期에서는 불교가 국교로 되어 社會指導層의 精神啓導에 기여한 바 있다.

앞으로의 한국불교는 비조직적인 시민대상의 교육에서 조직적인 학교교육으로 <불교의 科學哲學的 背景을 터득하여 西洋知識人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山岳佛教에서 <生活佛教>로 護國佛教의 수준에서 <衆生의 영혼 구혼 佛教>로 <生産佛教>로 지양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韓國儒教教育의 現在

한국의 유교교육은 農耕文化의 장점을 계승하고 牧商工文化를 점진적으로

消化吸收하여야 한다. 政治儒敎一致思想의 지양이 요구되고 있으며 선비의 <仁者像再生>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양학문탐구를 위한 母胎體系化敎育의 <精神文化宗教哲學>기초를 이룩하고 있다.

韓國基督教敎育의 現在

한국에서는 기독교계 대학이 私學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韓國基督教敎育은 敎會體制의 모순을 克復해야 하며 精神的 敎理的 財政的 獨立性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他宗教에 대한 非寬容을 극복해야한다. 絶對平和主義를 선포하고 있으며 土着化에 의한 민족기독교의 확립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韓國의 精神開關化를 위한 大巡思想의 對處方案

<모든 理致를 모아 크게 이룩함>을 <開關>이라 하며 이것은 바로 <새 세계>를 열어 나간다는 것이다.

開關세계는 轉換된 세상을 말한다. 이 세상은 무척(無感)의 세상이며 相生의 세상인 것이다.

<전경 336면>에 개벽<그 자리는 天下가 한 집안이 되어 調和로서 창생을 法理에 맞도록 다스리며 하늘이 낮고 자기 안에 왕래가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過去와 現在와 未來와 시방의 세계에 通達하게 된다>고 하였다. 세상에 물, 불, 바람<水火風>의 三災가 없어지는 地上仙境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먼저 地上仙境의 세계를 창출하고 韓國의 開關化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의 불교敎育, 유교敎育 및 기독교敎育에 대한 점진적인 開關化 實踐方案을 摸索해 나가야 한다.

韓國佛敎敎育에 대한 대처방안

<전경 167-8면>에서 <知人>은 <天의 恩惠, 地의 用德, 백성의 道, 現象 卽理에 대한 通慧力이 있어야 한다>고 定義한바 있다. 앞으로의 한국불교는 비조직적인 시민대상의 敎育에서 조직적인 학교敎育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며 佛敎의 科學哲學的 背景을 터득하여 西洋知識人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進一步하여 생활불교 호국불교의 수준에서 <해원상생의

불교>로 <地上仙境 및 宇宙平和의 哲理를 도통케하는 佛敎>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韓國儒敎敎育에 대한 대처방안

한국의 유교 敎育은 선비의 <仁者像再生>이 요구되어지며 政治儒敎一致思想의 지양이 요구되고 있다. 農耕文化의 장점을 계승해 나가야하며 牧商工文化를 점진 消化吸收해나가야 하는 宗教文化史的 當爲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토대위에 일보전진하여 解冤相生으로 生産的인 地上仙境 및 <현대감각의 仁>을 재생하여야 한다. 政儒一致에서 世界平和 宇宙平和의 哲理를 점진적으로 접근해나가 道通眞境케 해나가는 <仁者像思想>을 재정립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基督敎敎育에 대한 대처방안

한국의 기독교敎育은 <敎會體制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精神的 敎育的 獨立對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토착화에 의한 民族基督敎敎育의 확립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 유형의 지양점을 바탕으로 정신적 교리적 독립대책 수립에 科學哲學的 民族宗教的 解冤相生哲理를 점진적으로 심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他宗教에 대한 非寬容을 극복하며 토착화에 의한 민족기독교에서 民族宗教 및 宇宙平和의 民族文化史的 當爲哲理를 점진 터득하여 道通眞境케 하여야 한다.

인간은 원한 품은 존재이다. 반면 天地와 渾然一體가 되어 죽음을 미워하지 않고 생을 즐기는 일 없으며 알팍한 지식으로 <天>에 아첨하지를 않은 <眞人>으로 <가도(可陶)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해원상생 地上仙境으로 宇宙平和를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의 儒佛仙, 西敎 및 한국인의 民族文化史 및 宗教哲學史的 價値 認識 基準의 轉換터전이 자리메김 되도록 하여 한국의 개혁화를 점진 整地해 나가야 한다.

6. 未來開闢化

<宇宙는 변하는 것>이다. 先天에선의 <우주>는 주우<宙宇>를 존재의 기본으로 두게 된다. 선천에서는 天地四方인 우<宇> 즉 공간이 중심이었으나 후천에서는 주<宙> 즉 시간이 중심인 것이다. 즉 시간을 중심으로 한 우<宇>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중심점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후천에서의 우주관의 기본인 것이다. 其 轉換의 思考類型에는

첫째: 선천이 후천으로

둘째: 우주가 주우로

셋째: 陽氣에서 陰氣로

넷째: 天德 地德에서 人德에로의 思考類型轉換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其 전환을 반본<返本>이라 한다.

上帝께서는 상극상쟁<相剋相爭>과 그의 광구를 본질적으로 터득하였다.

전경은 원시 반본의 인간상을 匡救될 인간상 그대로 살아가는 無爲化의 인간상을 정립하고 있다. 후천세계의 문화 바탕은 文明利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덕<人德=仁德>을 주장하는 <생산적인 종교>에 있는 것이다. 미래의 개혁하는 원시 반본의 인간상을 구하고 <무위화의 인간상>, <人德의 인간상>을 찾아 정리하고 보다 合理的이고 <다이나믹>하게 자리메김되는 <유효수요적이고 실존적, 원시반본적이며 생활철학적인 생산종교의 정착>에 있는 것이다.

7. 開闢을 위한 上帝觀

상제는 太初以前에 <無限不在하신 祖>이시다. 대순진리회에서 信仰의 대상이 되고 있는 上帝는 구천응원상제<九天應元上帝>라고 부르고 있다. 太初를 있게 함을 응원이라 하고 九天은 아홉층의 하늘이 아니고 넓이와 높이를 겸해 가진 立體性의 구천을 뜻한다.

上帝의 <제>는 人格神인 祖를 말하며 <上>은 종적으로 <처음>을 뜻한다.

즉 太初의 立體를 있게 한 처음의 인격체인 祖를 상제로 정의하고 있다.

<上帝>는 모든 존재를 수동적인 존재로 있게 하고 그 밑에 天尊 및 神明

을 있게 한 존재이다. 이 모든 존재는 권위 있는 <萬物에 實在하는 至上的 存在로 공경하는 권능자>이다.

이는 科學哲學에서 인정하는 太初以前の <절대창조 권능체>이며 固形物質을 流動物質로 다시 유동물질을 고형물질로 可逆化시킬 수 있는 <絕對契機力者인 位相體>이다.

8. 開闢을 위한 宇宙觀

원래 우<宇>는 天地四方의 평면과 공간이며 주<宙>는 昔今往來의 四次元性의 時間을 의미하고 있다. 宇宙는 生成의 法則과 運回의 法則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주는 사물이기 이전에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이다. 믿음의 宇宙觀은 <達觀에서 터득한 우주>를 꿰어본 <側面的 觀>인 것이다.

存在<Sein>의 본질은 현상<phenomena> 즉 物質과 實在<Existence> 즉 정신, 氣의 결합에 의해 成立된다.

理氣二元論에서는 존재는 정신성, 파동성, 神明性, 形而上學性을 가지며 냄새도 빛깔도 없는 <氣>를 뜻한다.

이 <氣>의 생성을 가시 망<棼>이 얽혀 흠<筓>로 되어 <棼筓>로 서로 합쳐서 변하여 된 것을 <氣>라 하였다. <氣>는 天地를 한데 묶어 놓고 산천을 억누르고 陰陽을 머금거나 토하며<畚吐>, 사시를 펼쳤다 당기고<伸曳>, 팔극<八極>을 기강<紀綱>하고, 六畝를 다스려 바로 잡으며<經緯>, 혼돈의 바탕<樣, 質>에서 일관<洞同>하여 만물의 존재가 생성되게 하여 우주를 이룩하게 하는 것이다.

9. 開闢을 위한 人間觀

<전경>에서는 인간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첫째는 先天時代에 있어서의 상극적이고 또한 <抱恨>에 찬 인간이며
- 둘째는 미래의 相生的인 인간이고
- 셋째는 後天世界에서의 실존적인 인간 즉 原始返本하여야 할 인간으로

나누고 있다.

이제는 우주시대가 지나고 하늘을 드높이는 시대도 지나가고 <사람을 높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류는 <사람중심의 세계속에 들어서 있음을 自證>하고 思想的 宗教哲學的 啓導化 문턱에 들어서 있다.

새개벽을 향한 새차원의 人間觀으로 우주평화의 터전을 마련해야할 人類文明史的 思想史的 宗教哲學史的 문지방<闕>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V. 結論

<믿는다>는 것은 理性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며 승인<承認>하는 것이다. 이것은 知識의 문제가 아니고 성실성<誠實性>에 관한 문제이다.

<全人格을 다하여 그러하다고 全幅的으로 옳다고 찬성하는 是認의 행위>인 것이다. 전경의 증언도 믿는데서 성립되고 證言되는 것이다. 이 <是認>은 단순히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上帝께서 聖身으로 顯現(顯現)하셔서 말씀하시고 說하신 客觀的인 事實에 대한 是認>이며 承認行爲인 것이다.

통상으로 宗學에서 <宗義는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 持續的으로 추구되고 언제나 살아있는 것>으로 整理되어있다.

이상에서 持續的으로 살아 있는 追究內容을 전경 속에 담긴 세계화 未來化意志, 地上 地下 宇宙空間의 天國建設, 中國 日本 美國 中東 韓國을 中心한 世界開關化 方案 摸索, 未來의 開關化 플랜, 개벽을 여는 새차원의 上帝觀 宇宙觀 人間觀을 부분적으로 정리하였다.

인류가 사람을 위해 相生하고 生産的인 仙境을 찾고 宇宙平和를 구현코저 自證하고 <人類文化史的 새 차원의 思想史的 宗教哲學的인 새로운 章>을 열어 나가기 위한 <新天地의 새 문턱을 넘어갈 思念>을 다듬어 보았다.

【참고문헌】

金東葉(1971), 佛敎와 敎育思想, 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1989), 典經
------(1994), 甌山の 生涯와 思想
張基權 譯(1976), 老子 莊子, 三省出版社
張秉吉(1989), 大巡宗敎思想, 大巡眞理會出版部

Argyle. N(1958), Religious Behaviour, London
Hume. R(1955), The World's Living Religions, New York
Johnson. Paul(1955), Phychology of Religious, New York
Kamata Sikeo(1987), Hua-Yen Thought, Tokyo
Morris. V. C(1966), Existentialism in Education, New York
Musuharz Sunchi(1988), Buddhism on Science Age, Tokyo
Tillich. Paul(1964), Systematic Theology, 3Vols, Chicago
T. R. V. Murti(1955),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London

高崎直道(1983), 佛敎人間, 東京大
岸本英夫(1958), 宗敎神秘主義, 文明堂
村岡典嗣(1956), 神道嗣, 創文社
大野達之助(1961), 日本의 佛敎, 至文堂
宇井伯壽(1943), 佛敎思想研究, 岩波書店
羽田 亨(1948), 西域文化史, 座右室刊行會
堀一郎(1951), 民間信仰, 岩波書店

李恒寧(2001), 「無自欺의 現代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12집, 포천:大
巡思想學術院

崔東熙(2001), 「宗敎目的으로서의 精神開闢」, 「大巡思想論叢」 제13집, 포
천:大巡思想學術院